

스위스 HSLU 교환학생 보고서

(2023.09.05~2024.02.1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박용주

1. 교환학생 지원

대학교에 들어오고 교환학생을 해보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4학년 때 긴 휴학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루지 못 했습니다. 휴학 기간 동안 학교 밖에서 활동하면서 아직 제가 학생으로서 경험할 것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었고, 다른 문화권의 사고 방식과 교육 방법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고여 있던 저에게 자극을 주고 싶다는 생각과 졸업 전에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복학 후 곧장 교환학생을 준비했습니다.

1) 지원 학교 선정

유럽에 가 본적이 없었는데 다양한 국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럽이 좋았고, 그 중에서도 평소 좋아하던 나라인 스위스가 1순위였습니다. 도시보다는 자연을 좋아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접해 있어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서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공대 협정교 중에서 FHNW와 HSLU가 컴퓨터 분야로 지원 가능했는데, 둘 중 스위스 중앙의 루체른에 위치한 HSLU가 더 마음에 들어 1지망으로 지원했습니다.

2) HSLU (Lucer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조사

지원 과정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만 알 수 있었습니다. Luzern(루체른)을 포함한 3개의 지역에 캠퍼스가 있고, 특히 공대 건물은 루체른에서 기차로 25분 거리의 Rotkreuz 지역에 홀로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익숙하기도 했고, 사람이 많은 루체른과 달리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직전 학기의 강의 목록과 강의계획서도 확인 가능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었고 기숙사 관련 정보들도 미리 볼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지원 과정 때에는 간략하게만 파악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합격 후에 진행했습니다.

3) 토플

저는 입학 때 치른 토플 성적 외에 영어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토플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가을 학기 교환학생에 지원하려면 2023년 2월까지의 성적이 나와야 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되자마자 1달간 속성으로 공부한 뒤 시험을 쳤는데, 스피킹 점수가 매우 낮았지만 다행히 총점은 80점이 넘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교환학기 중 영어 회화도 꼭 수강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합격

HSLU를 1지망으로 하여 2월말에 수학계획서를 제출하면, 4월 초에 HSLU로부터 메일이 옵니다. 안내에 따라 HSLU 웹페이지를 통해 여권 사본, 자기 소개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수강 계획서, 영어 성적 등을 제출하면 5월 초에 합격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을 받고나서 5일 안에 웹페이지에서 합격을 최종 확정하고 출국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2. 출국 준비

1) 기숙사

합격 후 곧바로 기숙사 신청 기간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감되니 신청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공대 건물에서 5분 거리인 Rotkreuz 기숙사를 신청했고, 신청 후 조

금 기다리면 기숙사 확정 문서와 입금 관련 정보가 메일로 옵니다. 기숙사 문서와 기숙사 주소는 이후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니 숙소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걸 추천합니다.

2) 비자, 보험, 계좌

HSLU 측에서 비자 발급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스위스 대사관 사이트나 인터넷 블로그에 잘 나와있습니다. 서류 목록에 따라 비자 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 학교 합격 문서, 재학/성적 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잔고 증명서를 준비하여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사관에서 영어 실력 확인을 위해 영어 면접을 보는데, 3분 정도의 짧은 대화이고 간단한 질문만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기숙사는 Rotkreuz에 위치하기 때문에 Luzern이 아닌 Zug의 migration office에서 나머지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대사관 면접 후 약 2주가 지나면 스위스의 migration office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메일이 옵니다. 양식에 맞는 서류(주소 등의 인적 사항), 기숙사 문서, 학교 합격 문서, 재학 증명서, 스위스 보험 증명 서류, 스위스 프랑(CHF) 잔액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스위스 보험과 계좌는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은 swisscare라는 것으로 가입했는데, 별다른 어려움없이 swisscare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무난한 swisscare로 가입했습니다. 가격은 한 달에 약 10만원(CHF 63)이고 마지막 2월달 보험료 일부를 환불해 준 걸 보니 일할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에서 인정한 은행의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 한국에서 스위스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닌 개인이 UBS와 같은 은행 계좌를 한국에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고, 일단 신한은행에서 CHF 단위로 잔액 증명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별말 없이 바로 비자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한 학기 교환학생을 위해서는 CHF 10'500(약 1,600만원) 이상의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며칠 뒤 비자 승인 메일이 옵니다. 이 때 입국 가능 날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날짜에 맞춰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도 방문해 여권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3) 국외수학허가 신청

출국 전 mysnu에서 '국외신청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수학신청원,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지도교수님이 출장 중이시라 메일을 통해 온라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류 제출을 잊고 있다가 출국 전에 급히 마무리했는데, 미리미리 신청을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HSLU 학생 계정 등록

합격 후 학교 생활에 필요한 E-mail(stud.hslu.ch)과 학교 계정을 발급해주는데 개강 전 반드시 계정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Microsoft의 authenticator 설정도 필수이니 미리 앱을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이 계정이 있으면 HSLU의 My Campus(mysnu와 비슷)와 ILIAS(ETL과 비슷)를 문 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수강 신청

교환학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강 신청을 수기로 진행했습니다. 강의 목록을 보고 듣고 싶은 과목들을 최소 학점인 18 ETCS 이상으로 적어 HSLU 측에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저는 최소 학점인 18 ETCS를 신청했는데, 체감상 한국의 10학점 정도입니다. 네트워크(3), 인공지능(6), 블록체인(3) 등 서울대학교에서 미처 듣지 못한 전공을 넣었고, 영어 회화(3)와 기업 윤리(3) 교양도 넣었습니다. 전부 약 2시간 30분짜리 통강이라 월요일 3학점, 화요일 6학점, 수요일 9학점만큼 수

업을 들었고 목금 공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6) 1차 워크샵

7월 1일에 Zoom으로 온라인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교환학생 담당 직원분들께서 간략하게 스위스와 학교를 소개하고 비자 준비 방법, 버디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 이미 서류로 안내 받은 사항들이라 새로운 정보는 없었지만 공식적인 첫 행사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7) 버디 신청

버디와 관련된 메일도 따로 받게 되는데, 안내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버디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기대를 갖고 버디를 신청했는데 매칭된 버디가 활동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버디없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뒤에 나오는 ESN과 기숙사 친구들 덕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처럼 버디가 없어진 경우 학기 중에 버디 신청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거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8) 해외 결제용 카드 준비

한국에서 쓰던 visa 카드를 해외에서 쓰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해외 결제용 카드를 새로 발급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트래블월렛을 선택했는데 6개월동안 불편함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토스나 하나은행 등 본인의 기호에 맞는 카드로 발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해외 데이터 로밍 신청

저는 해외 무제한 데이터 로밍이 되는 kt 요금제를 사용해서 스위스에서 따로 심카드를 구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국 번호를 계속 사용해도 행정 업무나 WhatsApp을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데이터 로밍이 되지 않거나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에서 Swisscom, Salt, Sunrise 등의 통신사에 방문해 심카드를 구매하면 됩니다.

3. 개강 전

1) 교통권 구매

입국 후 공항 역에서 바로 Half-fare travelcard를 발급했습니다. 교통비를 반값으로 줄여주는 패스권이라 최대한 빨리 구매했습니다. 여권 사진 등 필요한 서류는 미리 알아보고 한국에서 출력해갔습니다. Half-fare 외에도 GA travelcard와 Night GA Travelcard 등이 있는데, 본인의 여행 계획과 지출을 계산해보고 가장 적절한 travelcard를 발급하면 됩니다. 스위스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닐 거라면 GA travelcard, 아니라면 Half-fare와 Night GA 2개의 조합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저는 나이가 많아 Night GA는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싼 가격으로 기차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alf-fare로 반값을 지불하더라도 비싼 게 스위스 교통비입니다. 조금 먼 지역을 당일치기로 여행할 경우 하루에 10만원 이상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이버데이패스라는 하루짜리 교통권을 따로 구입하는게 더 좋습니다. 첫 날 Half-fare 패스권을 구매하는 것 외에 모든 교통권은 SBB 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램, 버스, 기차, 유람선, 세이버데이패스권 등 대부분의 표는 앱 내에서 확인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표를 깜빡해서 사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큰 금액의 벌금과 추후 페널티도 받게 되니 꼭 표를 구매해야 합니다. 가끔 얼굴 확인을 위해 여권 검사를 할 때도 있는데 SBB앱에 half-fare 카드를 등록해두면 거의 검사하지 않으시며 스위스 내에선 여권대신 거주허가증을 들고 다녀도 됩니다.

스위스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탁 트이는 풍경이 계속 지나갑니다. 한국에

비해 교통비가 정말 비싸지만 풍경 값이라 생각하면 조금 참아줍니다.

2) 거주허가증 발급

입국 후 비자와 입국 스탬프를 Zug migration office에 제출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방문하는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뒤 생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초대 메일을 받게 되는데, 다시 office에 방문해서 안내에 따라 지문을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그후 또 며칠 뒤 Rotkreuz 관공서로부터 거주허가증을 받으러 오라는 초대 우편이 옵니다. Rotkreuz 역 앞의 office(Gemeinde Risch)를 방문하면 거주허가증 실물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tkreuz로부터 다른 우편 하나가 더 왔습니다. 새로운 거주민에 대한 비용이 청구된 것이었는데 청구된 금액만큼 현금을 뽑아 Rotkreuz office에 지불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거주허가증 발급 비용이 CHF 238(약 35만원)이었고, Rotkreuz에서 청구한 비용까지 합하면 총 40만원 정도 지불한 것 같습니다.

3) 보험 면제

Swisscare에서 Cantonal exemption form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데 거주허가증 스캔본과 학교 합격 문서를 form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kvg라는 기관과 메일을 주고 받는 등 사소한 지시 사항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4) 스위스 계좌 개설

제 경우에는 6개월동안 해외 송금을 할 일이 딱히 없어서 스위스 계좌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외 송금을 한 일은 기숙사 비용 이체 뿐인데, 신한은행의 경우 건당 5만원이라는 큰 수수료가 붙기는 하지만 계좌를 만들고 없애는 과정이 귀찮을 것 같아 그냥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wise 앱을 이용하면 송금 수수료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간 스위스 계좌 없이 트래블월렛과 현금으로만 생활을 했는데, 스위스 프랑이든 유로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친구들과 더치페이할 때 현금을 준비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이체할 일이 많을 것 같다면 스위스 계좌를 만들고 TWINT 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기숙사 handover

기숙사 입주 후 약속된 시간에 담당자분이 방에 오셔서 기숙사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알려주십니다. 4~5평 정도되는 원룸에서 생활했는데 공용 주방과 욕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방 자체는 꽤 넓었습니다. 방문은 열쇠로 잠글 수 있고, 열쇠에 부착된 센서로 건물 출입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열쇠는 2개를 받았는데 잃어버리면 보증금에 버금가는 금액(약 100만원)이 청구되니 절대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월세는 한 달에 CHF 680(약 100만원)이지만 시설이 좋은 편이었고 스위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각종 주방 기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욕실용품과 세제 정도만 개인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용 주방과 욕실을 청소해주었고,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는 거주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스위스는 생활 소음에 민감해서 밤 10시 이후로는 큰 소리를 내면 안됩니다. 다른 한국인 교환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다들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했다고 하는데, 기숙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다른 기숙사보다 규모가 조금 커서 10명이 한 층에서 생활했습니다. 다들 친절한 사람들이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6) ESN

개강 전 1주일간 ESN이라는 단체에서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줍니다. ESN은 스누버디와 비슷한데 학교나 버디의 안내를 통해 ESN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됩니다. 저는 버디가 없어서 기숙사 친구가 ESN 행사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앞으로 자주 마주치게 될 교환학생들을 처음 만나고 다같이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친해질 수 있으니 꼭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9월 초라 지금보다도 영어를 더 못했지만 막상 가보니 편하게 어울리는 분위기였고, 다른 학교 한국인 학생도 우연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7) 2차 워크샵, 캠퍼스 투어

개강 직전 HSLU 가을학기 교환학생이 모두 모여 대강당에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임의로 조를 짜서 스위스에 대한 퀴즈도 풀고 교내 동아리도 소개받는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면 상품을 받게 되는데 보통 상품은 초콜릿입니다. 스위스 교환학생을 하다보면 어느샌가 초콜릿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동아리가 많아 보였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기 중에도 ESN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하이킹에 더 많이 참여하는 듯 합니다.

워크샵과 별개로 캠퍼스 투어도 진행됩니다. 학교 시설과 도서관 등을 구경하고 학생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사용할 일은 없었지만 돈도 충전할 수 있고, 그 돈으로 프린트기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투어 중 버디가 사라진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버디를 맺어주겠다는 말과 추가 지원금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8) 지원금

제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공대 GLP 지원금을 받았고, HSLU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HSLU 지원금은 사정상 모든 학생에게 주어지진 않았는데 저는 먼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이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HSLU 지원금이 지속되는지는 확실치 않으니 서울대 국제협력실이나 HSLU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9) 여행

개강 일은 9월 넷째 주인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시간이 남아 루체른 지역과 융프라우를 여행했습니다. 가을 학기인 경우 학기 시작부터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 하이킹이나 호수 수영은 개강 전에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수업 기간

1) 학교 생활

학교 수업은 서울대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HSLU가 응용 과학 대학교라 이론보다 실습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듯 합니다. 영어 회화 수업은 서울대학교의 대학 영어와 비슷했고, 윤리학 수업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윤리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수업은 이론 위주로 진행하여 어느 전공 수업과 비슷했고, 블록체인은 기말 시험이 없어 이론 수업은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설계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업은 6 ETCS 짜리라 이론, 실습, 팀플을 모두 진행했는데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시고, 실습은 이론 시간에 배운 내용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수업과 비슷하게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가능하다면 구현까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 '1'을 쓰는 법이 다르거나, 질문할 때 손을 드는 자세가 다른 등 한국과 사소하게 다른 문화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2) 스위스 생활

스위스 물가는 정말 비쌉니다. 학식이 10프랑 내외이고 입맛에도 안 맞아서 밥은 거의 기숙사에

서 해먹었습니다. 쌀, 계란 등의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서 밥을 해먹으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인용 밥솥을 한국에서 챙겨 왔는데 기숙사 친구들이 아주 신기해 했습니다. 외식이나 가공 식품은 한국보다 2~3배 이상 비싼 편입니다. 김치 등의 한식 재료는 취리히에 있는 '유미하나'에서 구입했습니다. 과일의 종류가 많고 싼 편이고 저울에 무게를 직접 달아 계산하는 방식이라 편하게 자주 사 먹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밤 시간과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 장 보는 것을 잊으면 일요일에 아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루체른, 인터라켄 등 큰 도시의 역에 있는 마트는 문을 엽니다. 마트는 Coop이 가장 크고 유명하며 Migros, Denner 등의 마트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물 자원 관리를 매우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물을 마셔도 되고 숙소나 호텔에서 석회수를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수 역시 아주 깨끗해서 루체른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햇볕에 몸을 말리면 샤워를 한 듯 짹짹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분수도 모두 깨끗해서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직접 마셔보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를 잘 구사합니다. 영어만으로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독일어로 된 안내문은 카메라 번역기로 해결했습니다.

3) 여행

목금 공장이었기 때문에 4일간 이탈리아, 독일 등 인접한 나라를 가기 충분했습니다. 주중에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충분해서 자주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스위스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비수기이고 날씨가 많이 흐린 편이었습니다.

5. 시험 기간

수업 내용이 기대 이상이었고, Fail시 공대 지원금이 환급되기 때문에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험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절반 정도의 과목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시험을 치며 나머지 절반은 시험 준비 기간 이후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시험을 칩니다.

1) 12월 시험

12월에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윤리학 강의의 기말 평가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팀원들과 기말 발표를 하고, 인공지능은 기말 발표와 기말 시험, 윤리학 강의는 구술 시험으로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수업을 잘 들었다면 12월부터 준비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 발표 자료를 잘 준비했고, 시간 관계상 영어 대본을 보면서 발표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팀원이 열심히 참여하진 않아 기말 발표가 아쉬웠지만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윤리학 강의는 각자 관심이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시험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주장과 근거를 잘 준비해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월 시험

2월 초에 영어 회화 구술 시험과 네트워크 시험을 봤습니다. 영어 회화 시험은 주어진 글을 읽고 그 글을 요약하는 능력과 연관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긴장이 덜 했습니다. 네트워크 시험은 대강당에서 치뤄졌는데 수기 시험인 줄 알았으나 웹사이트 상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가지고 오느라 지각을 할 뻔 했는데, 시험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면 교수님께 꼭 메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3) 여행

1월에는 수업도 시험도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험이 1월에 있을 수 있으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종강 후 마무리

1월 말에 미리 거주허가증을 말소시키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Zug migration office에서 제공하는 W form 문서를 작성하고 거주허가증 카드와 함께 Rotkreuz office에 제출하면 거주허가증 말소 확인 서류를 줍니다. 이 서류를 촬영해서 swisscare에 메일을 보내면 보험도 해지됩니다.

2월 2일 네트워크 시험을 끝으로 교환학기를 종강했습니다. 교환학생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성적이 발표됐는데, 다행히 Fail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과목을 열심히 했지만 특히 재미있게 들었던 윤리학과 네트워크 과목의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체감상 서울대학교보다 학점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진행할 학점 인정 신청까진 다루지 못해 아쉽지만 HSLU 교환학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메일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jyp930@snu.ac.kr

정신없이 5개월이 흘러 귀국할 날이 다 되어가는데, 돌아켜보니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자연의 틈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세상이 움직이기 위해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의 교환학생 경험이 제가 걸어갈 길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걷는 기분과 태도는 이전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새로 알게 되었고, 제 자신도 더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공부하고 개발할 것들에 대한 동기 부여도 많이 되었습니다. 공대 동창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과감하게 지원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 후기를 빌려 공대 동창회 분들과 국제협력실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